

칼럼

장기채 주필



### 노인의 지혜 그리고 살아가는 비결

공자의 제자 자공이 한수(漢水 : 한강의 옛 이름) 기슭을 지날 때 한 노인이 항아리에 물을 길어 밭고랑에 붓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자공이 물었다.

“어째서 양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은 이랬다. “양수기를 쓰면 편리한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한번 기계에 팔리면 순박하지 못하고 정신이 안정을 이룰 수 없어 마침내 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양수기를 다룰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자공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도 그는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은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유양한 견배사 중에 ‘깡깡’이 있다. 몇 개의 서로 다른 풀이가 전해지지만 ‘좀 더 사랑할걸, 좀 더 즐길걸, 좀 더 배울 걸’이 으뜸이다. 죽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후

회하는 사람은 없다.

더 즐기고 사랑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배려야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좀 산다는 나라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바로 우리 이야기다.

어쨌든 불교의 설화 모음에 나타난 노인의 지혜는 끝없이 많다. 이제 백세시대의 멋있는 노년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노인이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논어’ 지한 편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히 없었다.’고 했다.

4가지란 의, 필, 고, 아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이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이라는 집착으로 풀이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하니, 범인으로서 이를 끊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탈무드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추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여덟 살은 말, 다차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랄 것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는가.

### 社 說

### 스쿨존 안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 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 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 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한다.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번의 실수와 쓰라린 실패의 역경을 딛고 당당하게 성공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원천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어떤 때는 마치 권투장의 패자처럼 강력한 펀치에 맞아 땅에 넘어져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관중의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실패와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시련이 컸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나아갈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목표였던 그곳에 도착할 날이 있을 것이다. 실패를 겪는 것은 성공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패는 바다와 같아 거대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양을 건너 각종 시련과 풍파를 견디어 내야만 성공적으로 육지에 도달할 것이다. 사람들은 육지까지 성공적으로 헤엄쳐 나온 영웅을 칭송하면서, 실패의 바다를 헤엄쳐 나와야 했던 필요성은 쉽게 잊어버린다. 성공은 순탄한 길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용감하

게 현실에 맞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성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거나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계획을 세웠으면 무리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희망을 실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담은 역량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다. 희망이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며 꿈을 이루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요즘시대 우리 인생은 불과 내일도 예측하기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난 내내에도 이 일과, 이곳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등 오만 생각이 다들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낙담하고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잘대포기하지 말며 포기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실천한다면 낙담이 희망으로 우리 모두 곁에 다가와 웃을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종균 / 광주북부서 현장지휘담당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